

원인을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6. 경각조치 '가'항 및 '나'항의
 1985.10.11 전예'를 '1985.10.10
 이전'으로 각각수정

심 의 건 과

의 안 번 호	회 의 차 수	회 의 일 자	제 의 자
47	22	1985.10.10	총재 최창락

의 안 :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 일부개정

의결사항 :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 의 관 계 : 한국은행법 제7조, 제64조 및 제65조
 법규조항

제 의 취 지 : 최근 시장실세금리의 안정화 추세 및 제2금융권 금리의
 인하조치에 맞추어 CD발행 및 대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유사 금융자산간의 금리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금융비용 부담의 경감에 기여케 하고자 본건 천키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관계법규조항 안내

한국은행법 제 57 조

- ① (생략)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52 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 ④-⑥ (생략)

한국은행법 제 64 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한국은행법 제 65 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붙임)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 일부 개정 (안)

현	개 정 (안)
1.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가. <u>최고이율: 연 12.0%</u> 나. - 마. (생략)	1.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가. <u>최고이율: 연 11.75%</u> 나. - 마. (현행과 같음)
2.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 <u>최고이율: 연 13.0%</u> 나. - 다. (생략)	2.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 <u>최고이율: 연 12.75%</u>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신설)	3. - 4. (현행과 같음) 5. <u>실시일자: 1985.10.11</u> 6. <u>경과조치</u> 가. 1985.10.11 전에 이미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 <u>종전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u> 나. 1985.10.11 전에 이미 취급한 양도성예금증서 대출에 대 <u>하여는 어음대출의 경우에는 어음기일까지 종전 이율을 계속</u> <u>적용하며, 증서대출의 경우에는 1985.10.10까지의 이자계산은</u> <u>종전 해당 이율을 1985.10.11 이후의 이자계산은 개정이율</u> <u>을 각각 적용한다.</u>

=====

85.10.10 제22차 금통운위

제47호 부의안건 설명자료

=====

은행금리체계의 부분적 조정방안

1985. 10

자 금 부

1832

〈 차 례 〉

I. 조정방안

II. 조정의 배경

III. 금융기관 수지에 미치는 영향

〈 참 고 〉 최근의 금리인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I. 조정방안

1. 시설자금대출 최고금리 인하

- 약정기간 1년초과 시설자금대출금리(연10.0~13.5%)의 최고금리를
0.5%포인트 인하

대출금리 조정방안

	(연%)	
	현행	개정(안)
1년초과 시설자금대출	10.0~13.5	10.0~13.0
기타 대출	10.0~11.5	10.0~11.5

2. CD금리의 인하

- CD발행 및 대출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

CD금리 조정방안

	(연%)	
	현행	개정(안)
CD발행	12.0	11.75
CD대출	13.0	12.75

I. 조정의 배경

1.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최근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

- o 다만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은 현실물가상승율을 크게 상회하여 현실물가상승율에 의해 실질금리 수준을 판단하기는 곤란

대출금리 및 기업이익률 추이

	81	82	83	84	85.9
일반 대출금리 (A)	16.8	10.0	10.0	11.5	11.5
도매물가 상승율 (B)	20.4	4.7	0.2	0.7	-0.4
실질금리(A-B)	-3.6	5.3	9.8	10.8	11.9
제조업 경상이익률	10.0	8.8	9.6	9.7	..

-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차등폭 확대이후 시설자금수요는 연11.5% 적용대상인 수출산업설비금융, 에너지절약시설자금에 집중되었을 뿐 연13.5% 적용대상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었음

금리단계별 시설자금 취급상황
(85.4.19~8.31)

	10.0	10.0~11.5	11.6~12.5	12.6~13.4	13.5	계
취급액	1,055	2,569	59	22	478	4,183
(구성비)	(25.2)	(61.4)	(1.4)	(0.5)	(11.4)	(100.0)

- > 지난 4.19이후 연10.0~13.5%로 차등폭이 확대된 시설자금대출 최고금리를 소폭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신규설비 투자마인드 진작

- o 대출금리의 전반적 인하는 기존의 거액 차입업체에 대한 금융비용 경감에는 기여할 것이나 직접적인 신규투자 유발효과는 의문

2. CD와 유사금융자산간의 금리형평 도모

--- 저축성예금의 CD로의 Shift에 의한 M2지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CD발행 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채권시장의 수익율 저하, 제2금융권 금리의 계속적 인하로 CD의 상대적 수익율이 상승함으로써 CD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 o 85.3월 CD금리인상 및 한도확대(7,500억원 → 10,000억원) 이후 시장금리의 현저한 안정화 및 원매채자금의 유입증식, 제2금융권 금리인하 등으로 2개월만에 한도가 소진

	CD발행 추이 (억원)						
	85.3	4	5	6	7	8	9
잔 액	9,188	9,784	9,752	9,606	9,899	10,245	9,981
순증액	1,329	569	-32	-157	295	346	-264

* 85.3월부터 10,000억원을 한도로 운용

→ CD발행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10,000억원 → 14,000억원)함과 동시에 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시 CD금리인하를 통한 CD의 수급균형 도모 필요

— 제2금융권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자산간의 금리체계 합리화

- o 금융채, 회사채 및 제2금융권 금융자산 금리는 지난 8월 0.2~0.5%포인트 인하된데 이어 10월중 0.25%포인트 추가인하

제2금융권 금리인하 추이

(연리,%)

	종 전(A)	8.7	10.11(B)	B-A
CP(표면금리)	12.5	12.3	12.1	0.4
회사채(3년, 수익율)	13.52	13.28	13.03	0.49
금융채(3년, 수익율)	13.28	12.79	12.54	0.74

<참고> 시장금리 추이

	84.3	6	9	12	85.3	6	9
국 공 채	13.4	14.5	15.1	15.2	15.2	14.0	13.5
회 사 채	13.6	13.7	14.6	15.1	14.9	14.2	13.8

III. 금융기관 수지에 미치는 영향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차등폭 확대 이후 연13.5%적용 시설자금 취급이
미미할 뿐 아니라 CD발행 및 대출금리의 동시인하로 금융기관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금융기관 수지효과 추정

	(억원)
1) 시설자금대출 최고금리 인하	-3
2) CD대출금리 인하	-25
3) CD발행금리 인하	+56
계	+28

< 참고 > 신중금융상품 도입이후 은행의 실제 수지변동상황

신중금융상품 도입 이후 은행의 평균자금조달 코스트는 0.21%포인트 상승

○ 한편 대출운용수익율은 신중금융상품 도입과 동시에 실시된 1년조과 시설자금 대출금리의 차등폭 확대이후 연11.5%(지방은행은 연12.5%)초과 시설자금 대출취급이 미미함으로써 (85.8월말까지 482억원으로 금융자금대출 순증액의 2.0%) 거의 불변임

→ 85.8월말 현재의 수신규모(298,990억원)을 감안하면 은행의 연간 수지악화규모는 628억원으로 추산됨

— 그러나 신중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수신규모의 확대로 총자금 운용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지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코스트 변화 (%) , 연%)

	85.3월		85.8월	
	구성비	평균금리	구성비	평균금리
1. 요구불예금*	30.1	0.46	27.7	0.43
2. 저축성예금	62.1	8.00	64.8	8.16
정기예금	26.6	8.56	25.4	8.59
자유저축예금	-	-	9.8	7.24
기타예금	35.5	7.57	29.6	7.94
3. 기타수신**	7.8	12.25	7.4	12.20
계	100.0	6.06	100.0	6.27

* 여신관리자금 제외

** CD, 상업어음일반대출, RP포함

< 참고 > 최근의 금리인하 주장에 관한 검토의견

I. 금리인하 주장의 논거

1. 기업의 실질금리부담 과중

최근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증가

- o 1981년까지는 국내인플레이션이 공금리를 상회함에 따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으나 1982년이후의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실질금리부담이 10% 수준으로 높아졌음

	실질금리 추이 (%)				
	81	82	83	84	85.9
일반대출금리(A)	16.8	10.0	10.0	11.5	11.5
물가상승율(B)	20.4	4.7	0.2	0.7	-0.4
실질금리(A-B)	-3.6	5.3	9.8	10.8	11.9

2. 금리면에서의 경기부양대책 필요

경기부진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고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은행대출금리를 인하

- o 재정면에서는 이미 기업의 경기대응능력 제고 및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86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85본예산대비 12.5%, 추경포함시 10.2%증가한 총규모 138,153억원) 금융면에서도 금리인하
 → 투자증대 → 고용증대 → 소득증대 → 저축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촉진 필요

3. 국제금리의 하락 및 환율실세화의 일단락

— 작년 하반기 이후의 국제금리 하락추세로 국내금리 인하여건이 조성됨

- o 특히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환율실세화가 일단락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의 달러화가치 하락전망에 비추어 앞으로의 환율이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내외 실효차입Cost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금리의 인하여건이 마련되었음

국제금리 및 환율상승율 주위

(%)

	84.12	85.3	6	7	8	9
LIBOR(3개월)	8.63	9.44	7.75	8.13	8.13	8.25
대미달러환율(원) (상승율)	827.4 (4.0)	850.3 (7.4)	873.8 (8.8)	876.3 (8.0)	886.8 (9.7)	891.7 (9.4)

4. 주요경쟁상대국에 비한 국내금리의 고수준

—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경쟁 상대국보다 높은 국내금리를 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도모

국별 Prime Rate 비교

(%)

한 국	일 본	대 만	싱 가 포	홍 콩
10.0	5.5	7.25	8.28	8.0

1841

II. 금리인하시의 문제점

1. 기업의 실효차입 Cost인하 기대난

- 금리인하는 기존 은행차입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금융비용부담 경감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국내저축 둔화 및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의 약화로 기업의 실효차입 Cost를 오히려 상승시킬 우려가 큼
- o 최근의 신종금융상품 도입에 따라 은행의 수신기반이 크게 강화되고 이에따라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 현저히 확대되면서 기업은 단기고리의 제2금융권 차입금을 은행차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실효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되고 공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도 대폭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o 그러나 아직 공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가 상존하는 상황하에서의 금리 인하는 은행의 자금공급능력을 다시 위축시켜 기업의 전체적인 자금조달 Cost는 오히려 높아지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실효금융차입 Cost가 상승할 가능성이 큼

공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추이

(연%)

	84.12	85.3	6	7	8	9
국공채수익율(A)	15.2	15.2	14.0	13.7	13.4	13.5
은행대출금리(B)	11.5	11.5	11.5	11.5	11.5	11.5
A - B	3.7	3.7	2.5	2.2	1.9	2.0

2. 국민저축분위기의 저해

—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인 국제수지개선 및 외채절감을 위하여는 국민저축증대를 통한 투자재원의 국내자립도 제고가 긴요한 바 금리인하는 최근의 신중가계저축상품 도입등으로 모처럼 정착단계에 있는 국민저축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큼

o 특히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의 현저한 물가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물가안정을 이룩한 일본, 대만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인하시 국민저축심리의 저상 및 시중부동자금의 투기 성향화 우려

주요국의 기대인플레이션* 비교

				(%)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서 ·독
5.0	-0.4	0.4	2.7	3.2

* 1981~1984년중 물가상승율의 가중평균치

3. 금융기관의 수지악화

— 금리인하는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를 초래하여 1960~70년대의 기업지원 과정에서 부실채권 부담을 안고있는 금융기관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킬 것임

- o 금융기관의 자립적 성장기반의 구축없이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가 금융기관수지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4.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 저금리 운용시 기업은 자기자본보다는 차입경영 의존도를 심화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재고를 지해

- o 과거 기업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단행된 금리인하는 기업생산비 절감
—> 물가안정효과보다는 대기업의 은행차입증대 —> 재무구조 악화
및 중소기업의 금융기회 축소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음

5. 내외실효차입 코스트 격차의 상존

— 최근들어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국제금리가 국내금리를 하회하고 있으나 환율실세화로 외자조달 실효 코스트가 국내금리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현 국내금리 수준에서도 기업의 외자도입 기피 및 국내금융 선호경향 현저

o 금리인하시 내외차입실효 코스트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보전을 위한 외자조달의 애로 가중 초래

* 최근 환율실세화의 일단락 및 달러화 가치의 하락 전망등에 비추어 앞으로는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환율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이에따라 그동안의 원Shift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환율을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내외실효차입 코스트 추이

	(연%)			
	84.12	85.3	6	9
국내일반대출금리(A)	11.5	11.5	11.5	11.5
해외차입실효금리(B)	12.63	16.84	16.55	17.65
LIBOR(3개월)	8.63	9.44	7.75	8.25
환율상승율	4.0	7.4	8.8	9.4
A-B	-1.13	-5.34	-4.05	-6.15

III. 결론

-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전반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가 심존하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황하에서의 기본금리인하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비주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함
-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당분간 현재와 같이 투자촉진을 위한 설비금융의 확대 공급 및 통화의 신축적 공급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금리정책면에 있어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코스트를 인하하는 방향에서 공금리와 시장금리, 제2금융권금리와 은행금리의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선 제2금융권의 금리를 은행금리와 근접되도록 인히함으로써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을 적정수준까지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반적인 은행금리 조정문제는 앞으로 시장금리 및 경기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 o 84.11월의 대출금리 차등폭 확대 및 최근의 신증금융상품 도입등 실질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공급확대를 통한 기업의 제2금융권 차입 축소로 기업의 실질 자금조달 코스트는 오히려 전년보다 0.56%포인트 지하

기업의 실효차입 코스트 추이

(잔액기준, 연%)

	84.8월			85.8월		
	구성비	명목금리	실효금리	구성비	명목금리	실효금리
1. 간접금융	73.6	11.35	13.13	76.6	12.13	13.47
은	43.6	10.50	11.49	44.3	11.50	12.67
비	30.0	12.59	15.51	32.3	13.02	14.56
2. 직접금융	12.7	12.84	17.13	12.6	13.28	13.83
3. 해외금융*	13.7	12.88	12.88	11.2	9.25	9.25
계	100.0	11.75	13.60	100.0	12.07	13.04

* LIBOR+1%

1846